광주시, 대자보 실현 '차 없는 거리' 효과 입증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작년 10월부터 한달여 무등시장서
전년비 방문객 65%·매출 27% 증가
하루 평균 7700여명→1만명 늘어
금남로·백운광장·송정시장 등 확대

광주시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실현을 위해 운영한 '차 없는 거리'가 방문객 유입과 매출 증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대·자·보 도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5일부터 11월2일까지 매주 토요일 남구 군분로 무등시장 일대에서 차 없는 거리 및 야시장을 운영한 결과, 총 6만4190여명(체류시간 20분 이상 기준)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방문객 3만8845명보다 65% 증가한 것이다.

광주시는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린 각종 공연과 체험행사, 워크온 걷기 챌린지 등 다채로운 이벤트 등이 방문객 유입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차 없는 거리'를 거듭할수록 방문객 수가 지속 증가했다. 하루평균 7700여명이 찾던 군분로 야시장은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면서 1만명이 넘게 방문했다.

군분로 야시장 방문객수는 △10월 첫째주 1만1913명 △10월 둘째주 1만2628명 △10월 셋째주 1만2846명 △10월 넷째주 1만2943명 △11월 첫째주 1만3860명 등이다.

또 인접 전남지역 시·군 주민 등 외지인의 방문도 늘었다. 광주와 인접한 나주시(509명), 화순군(500명)에서 가장 많이 찾았으며, 여수(222명)와 목포(151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22.4%), 60대(21.9%), 40대(16.9%), 30대(13.2%), 20대(10.5%) 순으로, 전 연령대가 골고루 야시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차 없는 거리'가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졌다.

차 없는 거리를 운영했던 지난해 10~11월 군분로 일대 소비매출이 총 10억1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억9400만원)보다 2억1700만원(27.4%)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요식업이 총 5억3100만원으로 전체 소비매출의 52.5%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2400만원 증가했다.

광주시는 도심 주요 거리에서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차 없는 거리'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시는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혁신인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실현을 위해 5개 자치구와 함께 금남로 차 없는 거리, 풍암동 소통테마길, 백운광장 토요야시장, 전남대후문 대학로, 송정역시장 차 없는 거리 등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동차가 사라진 거리를 도심 속 휴식과 놀이 공간, 탄소중립 실현 체험 등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고 있다.

박혜미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한 효과를 지속 분석해 광주시 보행 중심의 공간 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시이용인구 증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3월 공공배달앱 특별할인 프로모션

최대 5000원 할인쿠폰 제공

광주시는 매주 토·일요일 3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던 광주공공배달앱 할인행사를 3월 한 달간 봄맞이 최대 5000원까지 제공하는 등 특별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경제회복 3박자 정책인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의 민생경제 정책 실천 전략으로 추진됐다.

광주시는 공공배달앱 '위메프오'와 '땡겨요'를 운영하고 있다. 주말 소비 촉진 할인쿠폰 발행, 상생카드·온누리상품권 결제시스템 탑재, 배달앱 운영사 자체 프로모션 등 다양한 할인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우선 새학기를 맞이해 평일인 3월 3일부터 6일까지 3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매주 토·일요일 제공하는 3000원 주말 할인쿠폰 혜택도 이어가고, 특히 KIA 타이거즈 홈 개막전 기간인 3월 22일과 23일에는 타이거즈의 승리를 기원하며 최대 4000원까지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지난해 광주공공배달앱을 운영사별 50회 이상 이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5000원 감사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3월 특별할인 프로모션은 광주공공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공배달앱 운영사인 '위메프오'와 '땡겨요'를 통해 할인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다. **노병하 기자**

산불진화 시연 광주 북구청 공원녹지과 산림팀 산불진화대원들이 27일 북구 운정동 산불감시초소 인근 야산에서 봄철 산불 기간을 앞두고 등짐펌프 등을 이용해 물을 뿌리며 산불 초동진화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농업환경자원 시험·분석 수수료 납부 확대

전남농기원, 결제수단에 카드 추가

전남농업기술원은 토양 등 농업환경자원 시험·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 방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져 보다 간편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 서비스는 토양, 농자재, 농업용수, 작물체 등 농업환경자원 성분 분석과 효능 검사를 수행해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험은 장기간 실험과 연구를 통해 토양이나 농업 자재가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과정이다. 분석은 실내 실험을 통해 단기간에 성분 함량을 밝히는 과정이다. 시험·분석 대상에는 토양뿐만 아니라 비료, 퇴비와 같은 농자재, 농업용수 수질 등이 포함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의 시험·분석 서비스는 연중 수시로 운영지원과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개편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져 현금을 따로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공간정보 플랫폼, 연간 이용자 21만명

전남도가 제공하고 있는 '전남도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해 최신 항공영상과 드론영상, 각종 부동산정보, 안전·복지 등 생활정보 서비스를 연간 21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토지개발사업 예정지의 최신 항공영상과 드론영상 서비스 이용자가 71%로 가장 많았다. 이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토지경계, 소유자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12월1일부터는 여순사건 유적지를 찾는 방문객이 쉽게 찾도록 위치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여순사건 유적지가 전남지역 역사·교육 등 문화자원으로 자리잡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신 항공영상과 각종 부동산 정보, 문화자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전남도 공간정보 참여마당(map.jeonnam.go.kr)'을 검색하거나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월10일 이후부터는 공간정보와 통신데이터 및 카드 매출 데이터를 융합해 원하는 지역에 대해 유동·유입인구 등 상권 분석도 가능해진다. 전남도는 지점 분석을 통한 업종별 매출 현황, 축제 분석을 활용한 타 시·도 유입인구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00명 대상 갱신 3월1일부터 5회
신규임차 3월17일부터 접수 예정

광주시는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2025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3월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 간(연장 때 최대 4년) 지원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 임차계약건과 갱신 임차계약건을 구분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3월1일부터 갱신 임차계약자 150명(5회, 회당 30명), 3월17일부터 신규 임차계약자 150명을 모집한다.

갱신 임차계약건은 신청기간을 2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5차례 접수하며, 첫 접수는 3월 1일부터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www/)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규 임차계약건은 오는 3월 17일부터 26일까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이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불법 실뱀장어 포획 행위 특별단속

전남도는 본격적인 실뱀장어 조업 시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양수산부,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실뱀장어 포획 행위를 4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실뱀장어는 인공종자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연산 포획에 의존하고 있어 매년 2월~4월 주로 서해안 일대에서 고소득을 노린 불법 포획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불법 실뱀장어안강망어구 설치는 준법 어업인과의 조업분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야간 항해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해 단속 민원도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전남도는 △무허가 불법조업 △어구 설치 구역 이탈 △어구실명제 미이행 △선명·어선표지판 고의 훼손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사법처리와 함께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오지현 기자**